좋은 사람 모여라

MISSION

요선동 상인 대상 음식 컨설팅 프로그램명은?



조운동네 좋은소식 14호를 보고
문제를 맞혀 주세요.

yeahey1011@wehago.com으로 정답과 연락처 발송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는 개별 회신 드립니다.

기간	2024년 10월 15일 부터 30일까지
발표	2024년 11월 4일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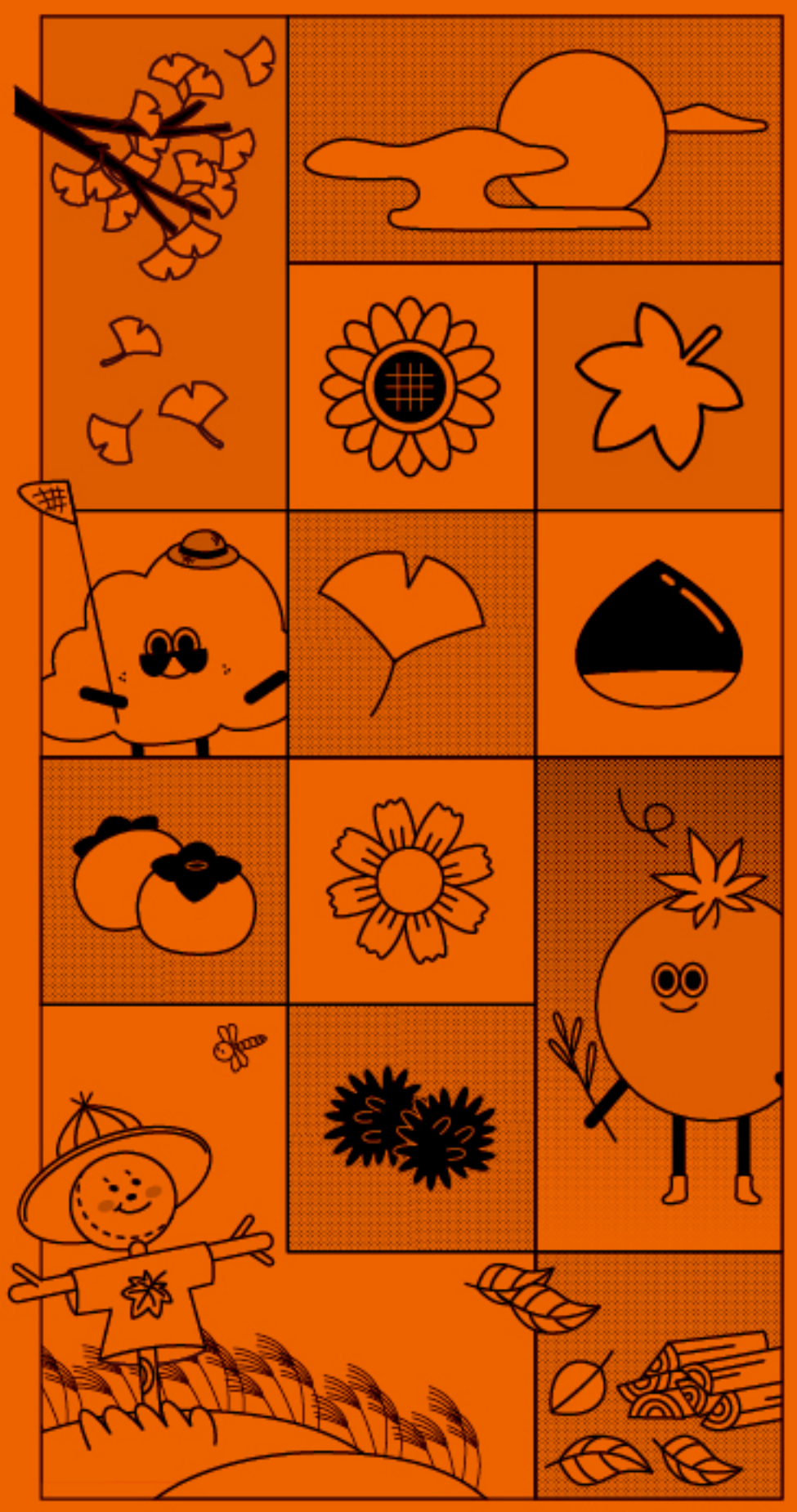
조운동네 카카오톡 채널

국토교통부 춘천시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조운동네 좋은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지하도상가

2024년 10월 14호



조운동네

CONTENTS

조운 게시판 1

그래도 조운 2

조운 미식회 8

조운 친구들 12

우리는 즐겁게 15

좋은 소식 16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4년 10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제작 도서출판 산책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그래도 조운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회장 박순희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춘천지회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니어들이 모델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꿈과 열정을 실현할 수 있게 돕고 있어요. 2023년에 열린 제1회 강원도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서 '시니어 모델 퀸(심재희)'을 배출하는 쾌거도 있었죠.



또한 강원도 내 주요 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열릴 한지 축제와 조선왕조실록 행사, 그리고 제2회 시니어 산업박람회에서도 시니어 모델들이 활약할 예정이에요. 협회 차원에서 시니어 모델 활동이 취미를 넘어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올해 12월에는 모델들과 함께 파리와 밀라노를 가게 됐어요. 900km를 걷는 런웨이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모델의 교육이나 모집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많은 분들이 취미로 시작하지만, 체계적인 자격증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교육을 마치면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교육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수강생은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거쳐 선발된 수강생들은 분기별로 기수를 부여받는데요. 9월에 들어오면 '9월 기수'가 되어 함께 교육받는 식이에요. 오디션도 중요한 과정이어서 많은 수강생들이 오디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원주 한지축제 오디션에 참여해 15명이 선발되기도 했고요. 선발된 수강생들은 9월 26일 원주 한지축제의 런웨이에 서게 돼요.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지 모델 '퀸' 1명이 뽑히게 될 예정이에요.





지하상가 소공연장은 어떤가요?

너무 좋죠. 정말 감사한 일인 게, 이렇게 시니어들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죠. 특히 시니어 모델들이 워킹을 연습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만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희 모델협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1팀은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2팀은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나눠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마음 편히 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다른 팀들과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니까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신 춘천시청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밴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피크 밴드"라고 하고, 저는 일렉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봄내중학교에서 동아리 기장을 맡고 있어요.

저희 밴드는 작년 5월 18일에 시작됐고, 공식 동아리는 아니고 자율동아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혼자 기타를 치다가 친해진 형이랑 같이 밴드를 하자고 해서, 학교에서 각 파트에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밴드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타는 제가 처음부터 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서 혼자 게임만 하니까 부모님이 그 시간에 차라리 기타를 배우라고 권하셔서 시작하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밴드는 오아시스이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Don't Look Back in Anger'예요.
롤모델은 딱히 없지만, 여러 밴드를 보면 정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팀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그런 밴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피크 밴드라는 밴드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원래 저희 밴드 이름은 '드리밍'이었어요. '꿈을 꾸고 있는 밴드'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저희끼리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고, 한 형이 '피크'라는 이름을 제안했어요. '최상위'라는 뜻을 가지고, '최고의 밴드가 되자'는 의미를 담아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떤 곡을 연주하시나요?

저희는 주로 대중적인 가요를 많이 하고 있고, 밴드 멤버들 중에 락 같은 외국 곡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맞춰가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곡들을 연습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실리카겔의 '노페인'이라는 곡과 루시의 '개화'라는 곡을 연주했었어요.

학교에도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은 있을 것 같은데, 지하상가의 연습실을 빌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밴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연습 공간을 찾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처음엔 학교에 있는 관현악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곳은 관현악기들이 많아서 기타나 드럼 같은 밴드 악기를 연습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연습실을 찾아보게 됐죠. 그런데 대부분의 연습실은 대여료가 비싸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1학년 때 잠깐 이용했던 지하상가의 연습실이 떠올랐어요. 그곳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럼과 키보드 같은 기본적인 장비도 갖춰져 있어서 매우 편리했죠. 장비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또한, 지하상가라는 위치 덕분에 방음이 잘 돼서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연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이런 이유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곳에서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식 동아리가 아니다 보니, 학교에서는 연습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몰아서 연습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연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운 미식회

조운미식회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매주
춘천 곳곳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만들게 된 모임입니다!

각 팀원의 입맛을 소개해 볼까요?

샌드위치 같은 빵 종류를 즐겨 먹어요.
떡볶이 제일 좋아하고 엽떡은 착한 맛만 먹어요. 향신료가 너무 센 음식은 좀 힘들어요.

해산물, 매운 음식, 향신료 등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밥이 제일 좋네요.^^
죽먹음식은 감자탕!

가리는 음식 거의 없이 다 잘 먹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
아 콩국수는 못 먹어요.X

무난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은 못 먹어요.

의정부 부대찌개

다양한 재료가 듬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4번길 18
033-255-3517
부대찌개

언제 먹어도 맛있는 부대찌개를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요선동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가게 중 한 곳으로
여전히 착한 가격과 양을 유지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3인분
같은 2인분, 4인분 같은 3인분인데요. 소시지, 햄, 당면, 라면,
두부, 김치에 한 입씩 하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 뚝딱.
게다가 집밥 느낌 물씬 나는 밑반찬까지 빼놓을 수 없는 집!

코디님들의 한줄평

5인분 같은 3인분 양이에요~~
국물이 칼칼하고 소시지, 당면, 라면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 있어서 좋아요!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매콤하고 자극적인 맛.
'근본' 라면 사리, 당면 사리 둘 다 들어간 부찌
'근본' 양도 많아 배불리 먹었어요~~

부대찌개 양도 푸짐하고
같이 나오는 밑반찬도 맛있어서
한 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부대찌개의 양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재료를 먹는 재미까지 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카츠도

정갈한 돈가스, 파스타 한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0번길 18

033-242-3335

춘천크림파스타, 모듬카츠

깔끔하고 정갈한 카츠도에 다녀왔습니다! 메인메뉴인 돈가스와 파스타부터, 밑반찬, 디저트 브라우니까지 나무 쟁반에 담겨 나와요. 인스타 감성 비주얼과 맛, 두 가지를 다 잡은 곳! 돈가스에 나오는 국이 고기가 들어간 된장찌개의 느낌이라 신선했답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온다는 후기를 듣고 예약하고 가니 바로 먹을 수 있어 좋았어요. (드실 분들은 예약 후 방문해 보세요~)

코디님들의 한줄평

(우삼겹 오일파스타) 갈비찜과 불고기 양념 사이에 있는 파스타! 양 정말 많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춘천 크림파스타) 생각보다 매콤해서 양이 많은데도 그다지 물리지 않았어요. 닭갈비와 크림의 조화가 의외로 굿! 다만, 조리에 시간이 쫌 걸리는 편!

(모듬카츠) 고기가 부드러웠고 모둠으로 시켰습니다. 메뉴는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같이 나오는 장국이 된장찌개 느낌이라 신선했어요!

(로스카츠) 깔끔한 한 상으로 나와서 좋았고, 같이 나오는 국에도 고기가 들어 있어요! 카츠는 두꺼워서 씹는 맛이 있어요 :) 다만,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드실 분들은 꼭 예약 필수!

서영

양도 가득 맛도 가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옥천길 27

033-255-9966

제육쌈밥

오늘은 양도 많고 맛도 있는 서영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주변 직장인들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제육쌈밥 주문에 신선한 쌈과 제육부터 상을 가득 채운 밑반찬까지! 또한, 2인용 뚝배기에 잘못 나온 줄 알았던 얼큰한 순두부찌개도 강력 추천. 아주 든든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코디님들의 한줄평

고기 냄새도 안 나고, 비계도 적절히 있어서 매콤 고소했습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샐러드 한입 하면 입안이 깔끔해져요.

조개 향 그득한 순두부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제육에 호로록호로록 딱 잘 어울립니당~ 고기, 마늘, 된장, 도라지, 쌀밥 넣은 상추쌈 이게 한국인의 소울이다.

제육볶음이 고기도 신선하고 막 짜거나 달지 않아서 정말 맛있었어요. 밑반찬들도 깔끔하고 쌈채소도 신선해서 좋았어요.

밥 한 공기 뚝딱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밑반찬들과 맛있는 제육볶음까지 너무 맛있는 한 끼였어요! 양도 많아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은 예약 추천해 드려요~

조운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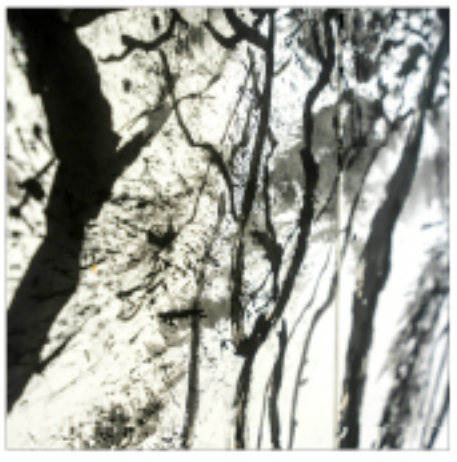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림회는 2015년에 발족했어요. 제 이름 '영림'에서 '림'자를 따고, 예술의 '예'를 넣어 예림회라고 지었습니다. 예림회는 그림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결성됐어요. "점만 찍어도 작가"라는 거죠. 코로나가 오면서 모임이 어려워졌지만, 소모임으로 모여 작품 활동을 계속했어요. 이곳은 제가 길을 걸어가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곳에서 벌써 세 번의 전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10회 전시까지 이어왔고, 정식 회원은 25명, 명예 회원을 포함하면 약 40명 정도 됩니다. 3개월 이상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전시할 수 있고, 강제는 없어서 모두 편안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공간의 저편 유토피아'로,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에요. 소나무는 예전에는 장수와 편안함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휴식처나 그늘막 같은 의미로 변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소나무의 새로운 의미를 담아냈고, 작품을 그릴 때 붓을 찍으면 정적이고, 터치를 하면 동적인 느낌이 나도록 표현했습니다. 또, 백먹과 초필 기법을 사용해 색다른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화홍'은 그림 속에서 물결치듯 자연스럽게 홍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를 버티게 한 것은 '홍'이었어요. 춤과 노래에서 느낄 수 있는 홍처럼, 저도 그림 속에서 그 홍을 담아왔고, 그 홍이 제 삶을 지탱해 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홍'을 제 화업의 중심으로 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Q. 예림회를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예림회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끈기라고 생각해요. 화가가 되려면 최소 2~3년은 꾸준히 해야 하고, 5년 정도는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많이 주려고 해요. 농담 삼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김홍도가 됐을 것 같다"고 말하면 다들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반대로 비판만 하면 그림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제 별명이 "닥터, 신의 손"인데, 아무리 못 그린 그림이라도 제가 조금씩 고쳐드리면 그 전후를 보고 다들 하나씩 배워가세요.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회원 개개인에게 신경 쓰는 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삼악산을 주제로 한 작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저는 춘천 사람이고, 삼악산을 대표적인 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등선 계곡에 폭포가 7개 있거든요. 삼악산을 4계절 모습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강촌이나 덕두원에서 본 다른 모습들을 담아내고 싶어요. 그래서 식상한 삼악산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삼악산을 그려내는 거죠. 이 작업은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삼악산 하면 서영림이 떠오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상상을 그리다

청소년 문화교육 〈상상을 그리다〉를 진행 중입니다! 9월 7일부터 시작해 10월 말에 끝나는 약 두 달간의 프로그램이에요. 춘천 관내 학생들과 함께 지하도상가를 화사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남부로 끝 갤러리 상상언더와 예술인 입주 공간 사이 계단·벽면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적은 편인 입구였지만 이제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로의 인식을 불러일으킬 예정인데요. 전시장 바로 옆에 연결되는 계단의 벽화를 통해 항상 열려있는 제2의 전시장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아낸 그림으로 가득 채워진 지하도상가 보러 오세요!



Q. 퇴직 후 예림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저는 2018년에 교직에서 퇴직하고 2019년에 예림회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서영림 작가님한테 배웠고, 1년 후부터 전시를 시작했죠. 사실 처음엔 엉터리 작품이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중요한 건 역시 끈기예요. 예림회의 회원들도 대부분 중장년층인데, 모두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2020년부터 활동이 어렵긴 했지만, 소규모로라도 모여서 전시를 이어갔고, 지금은 예림회가 안정된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는 춘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전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횡성의 한얼문예박물관에서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고, 여러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어요. 앞으로는 국전(국가전시)에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사실 퇴직 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미술을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꾸준히 더 나은 작품을 그려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특종 · 추억의 사진전

9월 19일부터 22일, 4일간 갤러리상상언더에서 강일언론인회 〈특종 · 추억의 사진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섯시 버스킹

틈새콘서트 시즌3가 돌아왔습니다! 점심 틈새 시간을 활용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해 질 녘 노을이 물든 가을 하늘 아래 공연이 진행됩니다. 10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두 달간 화 · 수 · 목 저녁 6시에 버스킹이 시작돼요. 피카디리 극장 앞 공간과 지하상가 중앙광장이 그 무대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3-250-4938
이예은 코디네이터

다시금 요선 맛집

요선동 상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권역 내 분포도가 높은 업종이자 권역 특성을 살린 '맛집 골목' 콘셉트로 점포별 판매 메뉴 컨설팅과 마케팅 교육을 진행해요. 상인 스스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문의 033-250-4937
편지영 코디네이터

갤러리 상상언더 정기대관

2025년 갤러리 상상언더 정기대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지하상가 남부로 끝에 위치한 전시 공간으로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대관 기간은 15일 정도예요. 자세한 내용은 조운동네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

조운동네 블로그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일정

- 10/1~10/15 우리 눈으로 본 춘천
- 10/16~10/31 소양상미회 정기 전시회
- 11/1~11/15 춘천을 품은 공예
- 11/16~11/30 제10회 예림회전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